

20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의병의 날'

매년 6월 1일... 내달 제천서 기념행사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현재의 우리나라가 되지 못했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나서서 싸워주신 의병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다. 바로 6월 1일 '의병의 날'이다.

'의병'은 '조선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다른 민족의 침략에 저항한 자발적인 백성의 군대'를 일컫는 말이다. 의병이 더욱 숭고하고 위대한 이유는 '자발적인 백성의 군대'라는 점이다. 자발적인 백성의 군대라면 군사적 훈련을 받지 않은 남녀노소 백성들이 참여했다는 말인데,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군대를 꾸려 역사적인 성과들을 이뤄냈다는 건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병들을 기념하는 '의병의 날'은 2010년 5

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공포한 법정 기념일이며 2008년 청원됐고 2010년 의결됐다. 의병의 날이 6월 1일인 이유는 임진왜란 시 광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호국보훈의 달 첫째 날인 6월 1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의병의 날은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애국정신 계승을 위해 생겼으며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했다. 올해 의병의 날 행사는 6·3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오는 7월 27일 제천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병의 날을 알고 있던 사람도 모르고 있던 사람도 이번 의병의 날에는 의병의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희생정신 등을 다시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해 보자.



백서은 학생기자 <제주중앙여중 2학년>

인도 스타 주연 맡은 제주 배경 영화 제작

아누쉬카 쉐 '제주 올래' 22일 제작발표회

한국·인도 글로벌 협업 영화가 제주를 배경으로 제작되고 있다. 인도 젊은 세대들의 롤 모델인 아누쉬카 쉐(Anushka Sen·사진)가 첫 한국 영화 주인공으로 나선 '제주 올래(Jeju Ollae)'다.

15일 루시퍼 프로덕션·스토리웍스에 따르면 '제주 올래'는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 제주에서 만나며 펼쳐지는 영화다.

인도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아누쉬카 쉐는 인도의 인기 배우이자 가수 알리샤 역을 맡았다.

제작사 측은 이 작품에 대해 "단순한 공동 제작을



넘어, 인도 최고의 스타가 직접 한국의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와 완성한 순수한 사랑 이야기"라며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과 함께 깊이 기억되는 음악이 낱실과 씨실로 짜여진 영화"라고 소개했다.

오는 11월 한국·인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중동 등 10여 개국 동시 개봉 예정이다. 오는 22일 오후 4시30분에는 제주 JW 메리어트에서 제작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영화의 첫 공식 영상과 주요 스틸을 처음 공개한다. 진광교 감독과 주연 배우 아누쉬카 쉐, 강형석, 하주영이 무대에 올라 영화 제작 이야기도 나눈다.



바르게 제주도협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좌중인)는 지난 12일 제주민속오일시장에서 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참여한 임원들은 도민 및 관광객들에게 부채를 나눠주고 12가지 에너지절약 행동요령을 알리며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건협제주 내도동 알작지해변 환경정화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임정식)는 지난 11일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해변에서 메디체크 어머니봉사단 및 임직원들과 함께 해양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다같이줍자 제주한바퀴'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해변에 유입된 해양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어류양식수협-우즈베크어업협회 업무협약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장 함용선)은 지난달 29일 우즈베크어업협회(Uzbekbaliqsanoat) 및 수산연구소(Fisheries Research Institute)와 삼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넓적 양식 기술을 바탕으로 내륙국인 우즈베크스탄에 선진 넓적 양식 기술을 전수하며 제주 양식 산업의 새로운 영토 개척에 나섰다.

우즈베크스탄 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수산물 생산 능력을 다각화하고, 국가적 과제인 식량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류양식수협은 현지연구와 협력을 통해 제주 양식 시스템의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해외 대학 탐방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사장 김문수)은 11~19일 '2026 해외 대학 탐방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등학생 17명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를 경유한다. 파리국제대학을 방문해 캠퍼스 투어를 갖고 개선문, 베르사유 궁전 등에서 다양한 국제 문화를 체험한다.



은하수토타리클럽 회장 취임 기념 쌀 후원

제주은하수토타리클럽(회장 변현주)은 회장 이·취임식을 기념하여 지난 10일 사회적협동조합 라온 주간활동센터에 쌀 300kg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의 의미를 담아 마련됐으며, 전달된 쌀은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신화월드 행복공작소 양파 증정 행사

제주신화월드(주)가 운영하는 제주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행복공작소(주)(사업총괄 박흥배)는 15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제주신화월드 서머셋 리조트 클럽하우스에서 장애인 직원들이 직접 키운 자색양파를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친환경 농법으로 직접 재배한 자색양파 200kg을 고객들에게 선물했다. 앞서 이날 1일과 4일에는 도내 장애인 거주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가정 등에게 자색 양파 1000kg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라신협 '제39회 사랑나눔한마당' 개최

한라신협(이사장 강경진)은 지난 11일 제주시 이도1동 복지회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제39차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랑나눔 한마당'은 2013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장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도 봉사자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는 급식 봉사가 진행됐다. 또한 보화당한의원(원장 허재혁)의 후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한방 진료 서비스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경라이온스클럽 창립 33주년 쌀 후원

한경라이온스클럽(취임회장 김성은)은 지난 13일 창립 33주년 및 회장 이·취임식을 기념해 초록우산 제주지역본부에 쌀 680kg을 후원했다.



에월고 교영민 교사 특별성금 기탁

에월고등학교 RCY 지도교사인 교영민 교사는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회장 정태근)에 제주안전문화대상 수상금으로 마련한 300만원을 전액 기탁했다.



해군 기동함대 학생 생존수영교육 실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는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김영관센터에서 함대 인근 초등학교 및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노형동민속보존회 도내 문화탐방 실시

제주시 노형동민속보존회(회장 양영보)는 지난 7일 도내 대표 관광명소를 순회하는 '2026 노형동민속보존회 도내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한라게시판

Advertisement for '화촉' (Flower Bell) featuring Kim Su-hyun and other staff member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publication.

Advertisement for '알림' (Notice) regarding the 2026 administrative fee improvement projec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the project.

Advertisement for '화촉' (Flower Bell) subscription,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rates.